

중동 난타전 옛새째...공습 '장군명군' 지상전 확산 우려

이란 해군 함정 침몰시킨 미국 "이란 영공 완전히 장악할 것" 미·이스라엘, 이란 체제 무너뜨리기 위한 '3단계 작전' 시행중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5일(현지시간) 중동 곳곳에서 옛새째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 주로 미사일과 드론 공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상군을 활용한 작전이 진행 중이거나 시작될 조짐을 보여 확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영공을 장악하고 정권 붕괴를 위한 단계별 작전의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복안이지만, 이란은 중동 내 경제 인프라 파괴 위협으로 맞서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우선 미국은 전날 스리랑카 인근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을 미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바다로 전쟁 무대가 넓어졌음을 시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정부) 장관은 4일(미 동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이 단호하고 파괴적으로, 그리고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스라엘과 함께 며칠 내로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해 B-2, B-52, B-1 폭격기와 드론으로

"하루 종일 하늘에서 죽음을 파괴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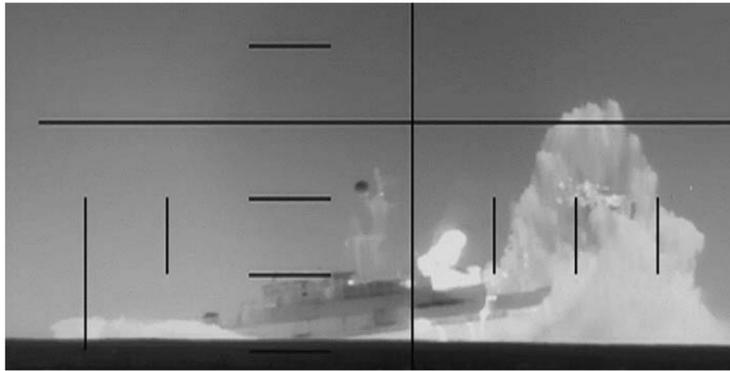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신정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3단계 작전을 시행 중이다.

1단계 작전으로 테헤란을 공습해 이란 지도부를 제거한 데 이어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방공망 파괴에 초점을 맞춘 '100시간'의 2단계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이스라엘군 고위 인사가 FT에 전했다.

이와 함께 3단계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 민병대 등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양측의 구상이다.

이스라엘군 고위 인사는 FT에 이란 핵시설과 군수 공장, IRGC를 포함해 "정권의 군사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육군은 전날 오후 "보병부대와 기갑부대, 공병부대 등 3개 사단이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인도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은 이란 해군 무지급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IRIS Denal)호의 모습을 담은 영상 캡처 화면. 데나호는 침몰했고, 약 100명의 수병이 목숨을 잃었다. 미 국방부 제공/UPI-연합뉴스

레바논 키암의 아파트 건물들 사이에서 이스라엘군 탱크로 보이는 차량 2대가 목격됐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는 사흘간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437명이 부상했으며, 8만3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레바논 당국은 밝혔다. 이날도 공항 고속도로에서 이스라엘의 두 차례 공습으로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뿐만 아니라 쿠르드족 병력 수천명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진입해 지상 공격작전을 개시했다는 미 폭스뉴스 보도가 나왔으나, 이란과 이라크 당국은 이를 부인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국 관련 시설을 겨냥한 공습으로 반격을 이어갔다.

IRGC는 3개국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

계) 레이더 3대를 미사일로 타격해 파괴했다고 이란 타스님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에서는 텔아비브 교외에 있는 벤구리온 국제공항과 국방부 청사 등을 극초음속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이란 측이 밝혔다.

그러나 미국, 이스라엘의 파상 공격으로 반격 능력이 약화된 데다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면서 반격의 강도는 낮아지는 추세다.

덴 케인 미 합참의장은 브리핑에서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전투 첫날에 비해 88% 감소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만 해도 23%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란 가운데 이란은 역대 모든 경제 인프라를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미국 등을 위협하고 나섰다.

IRGC는 전날 국영TV에 발표한 성명에서 "역내(중동) 군사·경제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됐다"며 "역내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장난질과 속임수와 협잡의 대가는 모든 군사·경제 인프라의 완전한 파괴"라고 말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위치한 아마존 웹서비스(AWS)의 데이터센터를 파손한 이란은 이날도 바레인에 있는 중동 내 최대 아마존 데이터센터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中 "올해 성장률 목표 4.5-5%"...35년 만에 최저치

부동산 침체·관계 압박 속 하향조정

중국 인민은행의 도전과제 속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35년 만에 최저 수준인 4.5-5%로 설정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유지해온 '5% 안팎' 목표를 4년 만에 소폭 낮춘 것이자 텐안문(天安門) 시위 유혈진압 여파 속에 안정을 우선시하던 1991년

(4.5% 목표) 이래 가장 낮은 목표치다. 예외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던 2020년뿐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성장률 목표(실제 달성률은 3%)를 2021년(6%)보다 낮은 5.5%로 제시했다.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세웠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 5%로 매년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목표치 하향조정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청년 실업 문제 등 내부 요인에 더해 미국의 관계 압박과 기술 통제 등 대외 변수가

지겹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진했던 경제 실적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5.4%)와 2분기(5.2%)에는 5%를 상회했으나 3분기 4.8%에 이어 4분기에는 4.5%로 떨어지는 등 내수·투자 부진 속에 하락세를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성장 속도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경제구조 조정 등을 통한 질적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성장률 목표와 관련해 "실제 업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발전과 안보를 잘 조율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선제성·정확성·협동성을 강화하고 내수를 지속 확대하며 공급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2% 안팎으로 제시됐다.

중국은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 목표를 3%에서 2%로 낮췄는데, 이는 수요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재정 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

재정 적자율은 지난해에 이어 GDP 대비 약 4% 수준으로, 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2천300억위안 증가한 5조8천900억위안(약 1천251조원)으로 계획했다. /연합뉴스

쿠바 '블랙아웃' 美원유차단 조처 전력난

고질적인 전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에서 4일(현지시간)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쿠바 전력청(UNE·Union Electrica)은 이날 페이스북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2시44분께 안토니오 기테라스 화력 발전소가 예기치 않은 누수로 인해 가동 중단됐다"며 "중부 카마게이에서 서부 피나르델리오에 이르는 약 700km 구간을 대상으로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영향을 받은 곳은 쿠바섬 전역의 66% 이상에 해당한다.

관영언론 쿠바데바테는 현지 관계자를 인용, 전력망 정비와 전력 공급 재개에 최대 72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쿠바 전력청은 몇 차례 추가 공지에서 "라스투나스 지역은 변전소 서비스가 중단됐다"며 "일부 지역에서 복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쿠바는 전력 생산·공급 인프라의 노후화와 극심한 경제 위기에 따른 연료 수급 부족 등 때문에 지난 수년간 반복적으로 정전을 겪어왔다.

쿠바 당국은 미국의 강한 제재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쿠바를 상대로 한 "제국주의 압박"에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게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정부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200년간 '작자 미상' 예수상 미켈란젤로 작품 판정

약 200년간 '작자 미상'으로 남겨졌던 로마 고대 성당의 한 예수 조각상(사진)이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인정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안사통신 등에 따르면 미켈란젤로 탄생 500주년 기념 바티칸위원회 위원인 발렌티나 살레르노는 로마 산타네세

푸오리 레 무라 성당의 예수상을 미켈란젤로 작품으로 다시 귀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장기간의 문서 조사와 공중기록, 미켈란젤로와 관련된 서신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살레르노 위원은 "이번 연구의 강점은 공개



기록 문서를 근거로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품은 19세기 초까지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여겨졌지만 이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작자 미상'으로

남겨졌다.

성당은 수세기에 걸쳐 개축과 증축을 거쳤지만 조각상은 성당 건물 안에 그대로 보존돼왔다. 현재는 성당 측면 제단 위에 놓여 있으며 경비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는 숨겨진 미켈란젤로 작품을 찾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